

속아 짓는 죄

Deceived to Sin

창세기 3:6-13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10월 16일 설교

⁶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⁷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⁸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다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⁹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¹⁰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¹¹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¹²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¹³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웅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뱀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까? 뱀이 뭐라 했습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뱀이 말한 그대로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뱀이 말한 그대로 두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 다 처음부터 눈은 뜨고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눈이 열렸다 했으니 지금까지 안 보이던 걸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벗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벗은 몸 역시 조금 전까지도 보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다 처음부터 벗은 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내 벗고 있었는데,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데, 벗은 줄을 왜 이제 와 알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는 벗었으면서도 벗었다는 걸 느끼지 못했는데 열매를 먹는 순간 그걸 처음으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렸으니 뱀이 웅었지요?

알게 되었다는 것은 판단하게 되었다는 말도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 했는데 말 그대로 좋고 나쁜 걸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뒤 우선 내가 벗은 걸 깨닫고 그 벗은 게 안 좋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좋고 나쁜 걸 구분한 거지요? 이장 끝에 보면 아담,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때는 좋고 나쁜 걸 알기 전입니다. 벗은 걸 의식조차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벗은 줄 알았습니다. 아는 순간 그게 안 좋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벗은 걸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한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몸을 가렸습니다. 안 좋으니깐, 부끄러우니깐,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과일을 먹으면 좋고 나쁜 걸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뱀이 말했는데 벗은 건 안 좋다 하고 몸을 가린 걸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벽이 생겼다

치마를 했다 했는데 이 말은 주로 앞을 가리는 치마를 가리킵니다. 허리 아래 부분 특히 성과 관련된 앞부분을 가렸다는 말입니다. 아담 하와가 마주보는데 앞을 가렸으니 서로 못 보게 가린 겁니다.

열매를 먹었으니깐 죄는 입으로 지었는데 왜 입을 안 가리고 성과 관련된 부분을 가렸을까요? 답을 알려면 앞 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 혼자는 안 좋다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셨는데 두 몸이 한 몸으로 되는 방법이 바로 성이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데 아무런 장벽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이 뭔지도 모르고 벗은 게 뭔지도 모르고 거의 무의식 수준에서 하나를 이루었던 것이 인류 최초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먹은 순간 벗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둘을 하나로 엮어주는 성 기관이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얼른 가렸습니다. 너와 나를 하나로 엮어주던 부분을 가렸으니 둘 사이에 전에 없던 장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순종밖에 몰랐습니다. 부부사이의 연합을 위해 주신 기관은 오직 그 연합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내 몸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합을 위해 주신 기관인데 연합과 무관하게 때로는 연합을 깨기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드러내는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갈라진 사이

죄가 아담 하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처음 여자를 보고 “나하고 똑같구나!” 노래 불렀던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여자에게 뒤집어씌웁니다.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뒤에 여자가 받은 벌을 보면 부부가 서로 겨루고 다투게 됩니다. 부모자녀 사이도 갈라지고 나중에는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먼저 깨졌기 때문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수평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 관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걸 먹고 먹지 말라 하신 걸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어겨 보니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가능합니다. 죄 아닙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며 가리게 되었는데 그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벽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 하더니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자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앞만 가리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됩니다.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리 숨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그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대들었습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물으실 때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면서 그 여자를 가리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람”이라 하여 선악과를 먹은 게 마치 하나님 책임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으로 모든 잘못을 하나님하고 여자에게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뱀이 간교한 질문 하나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더니 아담도 뱀이 시키는 대로 한 번 하더니 정말 뱀처럼 간교해 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아지는 게 아니라 거리만 멀어져 버렸습니다. 속았습니다.

뱀에게 속았다

눈이 열릴 거라 하고 좋고 나쁜 걸 가릴 줄 알게 된다 했는데 그것도 속임수였습니다. 참말인 듯한 거짓말입니다. 눈이 열린 게 어떤 건지 알면 그게 왜 속임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먹어 눈이 열렸습니다. 열매 속에 눈을 밝게 하는 무슨 화학성분 같은 게 들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들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이들이 말씀을 어김으로써 안 좋은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좋은 게 뭔지 그 뜻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김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안 좋은 일을 한 번 해 버림으로써,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하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뱀은 참 교활했습니다. 뱀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즐겨라 하신 하나님보다 한 가지는 안 된다 하신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그 한 가지마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하게 하시는 참 웅졸한 하나님으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심할 때까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다시 말해 악을 행동으로 옮겨 버렸을 때, 비로소 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좋고 안 좋은 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왜요? 다 좋았으니까요. 안 좋은 건 있지도 않으니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걸 해 보고는 이걸 안 좋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악이 뭔지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는 좋은 것뿐이었구나 하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 하기에 그 열매 속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사실은 내가 능력이 모자라 선악을 못 가린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라고는 좋은 것뿐이라 그랬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미 죄를 지어 버렸습니다. 나 때문에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생겨 버렸습니다 (롬 5:12). 한 번 들어온 죄는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얻었으니 뱀이 옳았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능력이 모자라 구분을 못 했던 게 아니고 세상에 악이 없어 구분을 못 했던 건데 내가 악을 만들어 냄으로써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속은 거지요. 뱀이 거짓말을 한 거지

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알아서 속아 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한 번이지만 참 뼈아프게 속았습니다.

똑똑해지는 음식

유대인 유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소련 시절에 어떤 유대인이 식당에서 혼자 수프를 먹고 있는데 소련 군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유대인을 보더니 다짜고짜 시비를 겁니다. “야, 너희 유대인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우리는 이렇게 머리가 좋아지는 수프를 늘 먹지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련군이 “그래? 그 수프 나한테 당장 팔아! 얼마야?” 물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값을 부르는데 먹다 남은 수프를 팔면서 보통 수프의 세 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비싸지만 머리가 좋아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을 치르고 수프를 받아서 한 숟갈 먹어보니 그냥 늘 먹는 야채수프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보통 야채수프잖아!” 하고 따졌더니 그 유대인 왈, “야, 이제 한 숟가락 먹었는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네!” 하더랍니다.

머리가 정말 좋아진 겁니까? 아니지요. 속은 겁니다. 속은 줄 깨달았습니다. 수프를 먹어 머리가 좋아지려 한 것도 우습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아져도 그렇지 남이 먹던 수프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 먹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한 술 뜨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속았구나! 그게 머리가 좋아진 겁니까? 좋아지긴 좋아졌지요. 수프 한 그릇으로 머리가 좋아지려 한 게 잘못이구나,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남루한 인간이 나처럼 위풍당당한 군인한테 사기를 칠 수도 있구나, 그걸 깨달았지요. 똑똑해졌습니다. 어떤 점에서 말입니까? 소크라테스처럼 내가 무식했다는 걸 깨달았으니 똑똑해진 겁니다. 바보짓을 안 했더라면 똑똑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바보짓을 하고 그게 바보짓이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똑똑해졌습니다.

유대인 정말 머리 좋지요. 유대인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 다른 민족도 머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대인 덕에 온 인류의 지능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머가 유대인 유머입니다. 똑같은 유머가 수프, 빵, 과자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유머를 유대인들 자신이 만들었다는 게 또 유머가 아닌가 싶습니다.

뱀한테 속았다

아담 하와가 먹은 선악과도 결국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입니다.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눈이 열렸습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지만 눈이 열려 그런 게 아니라 없던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도 전에는 악이라는 게 없어 구분도 못 하고 느끼지도 못하던 것을 악이라는 걸 하게 만들어 구분하게 해 주었으니 그것도 속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가운데 한 분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도 악이 뭔지 아시지만 사람은 악이 뭔지도 몰랐다가 악을 행함으로써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뱀한테 꼭 한 번 순종했는데 그걸로 뱀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눈이 열린 것도 속은 것이고 선악을 구분하게 된 것도 속은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에도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될 거라는 말은 뱀이 안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멀어질 거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한 말도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과 떨어진 순간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꾀다는 말의 번역이 좀 안 맞습니다. 원문은 꾀다 또는 유혹한다는 말이 아니라 속인다는 말입니다. 뱀이 나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말입니다 (딤후 2:14).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 8:44).

똑같은 작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이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야채수프라는 걸 깨달은 순간 이미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담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담 하와보다 먼저 안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미 늦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건 아담 하와가 아차, 하고도 한참 뒤의 일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지요. 온 인류가 그렇게 너무 늦게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죽은 아담 하와를 위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이천 년 전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아차, 늦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분만 믿으면 이미 늦은 그 잘못까지 다 용서받고 다시금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행 2:38).

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부지런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서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낫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노예가 된 세월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죄인 줄 깨닫지도 못하고 가책도 못 느낍니다. 뱀이 열여준 눈이 다시 감긴 셈이지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강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차, 늦었구나” 하고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눅 21:34; 살전 5:3).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맞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일 3:8). 마귀의 일은 우리를 속여 죄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에덴동산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죄 짓게 하려고 온갖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마귀의 속임수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거짓말, 어떤 속임수를 씁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속임수로서 정욕의 속임수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엡 4:22).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라 한 말씀의 원문은 “속임수의 욕심”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속여 죄를 짓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밖에 있는 속임수로서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운에 막혀 열매를 못 맺는다 하셨는데 가시가 뭐가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 하셨습니다 (마 13:7, 22). 여기서도 “재리의 유혹”이라 된 말씀의 원문은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돈을 비롯한 권력이나 쾌락이나 명예 그 모든 게 우리를 속인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의 속임수와 우리 밖에 있는 재물의 속임수를 같이 사용해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직하고 지혜를 줄 것 같아 탐스러웠다” 했습니다. 선악과라는 과일 자체는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내 마음에 있는 정욕이 나를 속였습니다. 요한일서는 그것을 가리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요일 2:16).

정욕의 속임수에 빠져 열매를 보니 그 열매가 나에게 속삭입니다. 나를 먹으면 눈도 열리고 선악도 구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속삭입니다. 오늘도 재물의 속임수가 선악과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갖기만 하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속이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했던 것처럼 나를 많이 쌓아두고 나를 섬기라고 속삭입니다 (마 6:19-24; 눅 12:13-21). 막상 먹어보니 과일 자체는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에 빠져 이것저것 가져 보지만 거기 만족이 있습니까? 그게 참 만족과 평안을 주고 영원의 소망을 줍니까? 아니지요. 그런데도 속아서 자꾸만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애를 씁니다. 사람을 속이고 짓밟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도 마귀가 정욕의 속임수와 재물의 속임수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요성

이렇게 오늘도 안팎에서 우리를 속이려 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셨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히 3:13).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죄의 유혹”이라 된 부분 역시 원문이 “죄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갖가지 거짓으로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죄 지으라고 속삭입니다. 날마다 서로 권면하지 않으면 죄에 속고 또 속아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 버립니다. 아담 하와는 마귀를 한 번 순종했다가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롬 6:16).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고 돌처럼 굳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죄는 언제나 후회를 동반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지금이 좋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잘 못 느끼지요. 좋은 줄 못 느끼는 그 때가 좋은데 더 좋은 게 있는 줄 속아 몸을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죄

짓고 악을 만들고 지금까지 있던 좋은 것마저 잃어버립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다가도 어느 순간 아차 합니다. 이미 죄를 지어 버렸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난 거지요. 눈도 열리고 나쁜 짓을 한 줄도 깨닫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의심이 되면 위험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얼른 다시 깨닫고 찬양과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흔들거리면 이미 잘못된 겁니다. 내 배우자가 가족이나 친구나 교우들에게 감추어야 할 게 생겼다면 큰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망스럽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싶을 때는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말고 당장 멈추어야 됩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우선 하나님과 나 사이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체족들처럼 옷을 벗어 던진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담 하와처럼 나뭇잎을 엮어 가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 예수께 도와 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이깁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고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을 따라 살면서 주신 삶에 감사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것마저 귀한 것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